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01] 해 (박두진): 2P
- [02] 매화 옛 등걸에~ (매화): 3P
 녹양이 천만사인들~ (이원익): 3P
 사랑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 (작자 미상): 3P
- [03] 장마 (윤홍길): 5P
- [04] 전우치전 (작자 미상): 7P
- [05] 고목 (함세덕): 9P
- [06] 차마설 (이곡): 11P
- [07]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13P
- [08] 놀부전 (이근삼): 15P
- [09]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17P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9p / 해설 1p]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장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앓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훗훗훗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
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취범을 따라 취범을 따라 취범을 만나면 취범과 놀고, ……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앓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

[25001-0003]

3. <보기>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이 작품에는 (㉠)이/가 지닌 밝음의 이미지와 (㉡)
이/가 지닌 어둠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룬다. 또한 밝음
이 지배하는 공간인 (㉢)은/는 (㉣),
(㉤)와/과 대비되어 평화와 공존이 구현
된 상징적 장소로 형상화되고 있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25001-0001]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정서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열의 방식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④ 활유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이 주는 역동적인 인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정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5001-0002]

2. 윗글의 각 연에 쓰인 종결 어미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로,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 (1) 1연의 '-아라': 대상에게 모습을 드러내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 (2) 2연의 '-어': 대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 (3) 3연의 '-아라': 대상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 (4) 6연의 '-리라': 소망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다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2p / 해설 2p]

(가)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예 피던 가지에 뾰족도 하다는
 춘설(春雪)이 난분분(亂紛紛)하니 필동 말동 하여라
 - 매화 -

(나)
 녹양(綠楊)이 천만사(千萬絲)인들 가는 춘풍 잡아매며
 탐화봉접*인들 지는 꽃을 어이하리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가는 입을 잡으랴
 - 이원익 -

* 탐화봉접(探花蜂蝶): 꽃을 찾아다니는 벌과 나비.

(다)
 사랑 사랑 고고히 맺힌 사랑 온 바다를 두루 덮는 그물같이
 맺힌 사랑
 왕십리 답십리라 참외 넝쿨 수박 넝쿨 엮어지고 틀어져서 골골이
 뻗어 가는 사랑
 아마도 이 입의 사랑은 끝 간 데를 몰라 하노라
 - 작자 미상 -

[25001-0004]

1. (가)~(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보 기>—

㉠ (가)는 감탄형 어미로 문장을 종결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나)는 대구를 이루는 초장과 중장을 점층적으로 연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다)는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물질인 것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 (다)는 동일한 시어를 수식하는 다양한 구절을 반복하여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적절하지 않은 것: _____

· 그 이유: _____

[25001-0005]

2. <보기>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연물과 화자의 관계는 달리 나타난다. (가)에서 매화나무는 화자가 응시하는 대상으로서, 매화나무의 현재 상태를 묘사하면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데 대한 (㉠) (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나)에서 자연물은 인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맡고 있다. 화자는 녹양이 춘풍을 잡지 못하고 봉접이 낙화를 막지 못하는 자연 현상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과의 (㉡) 을/를 막을 수 없다는 이치를 유추함으로써 인생의 한 국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 _____

㉡: _____

[25001-0006]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간은 하루, 한 달, 일 년 등을 단위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한편, ‘과거-현재-미래’는 순차적,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불가역성을 지닌다. 시간 의식은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하여 인간이 의식하는 방식 및 그에 대한 태도를 가리킨다. 서정시에서는 시간을 알려주는 어휘나 문법적 표지(標識)인 시제를 단서로 하여 시간 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시간과 무관하게 항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현재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의 현재는 과거 혹은 미래와 대비되는 현재와는 다른 의미가 된다.

- ① (가)에서 화자는 꽃이 피었던 과거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꽃이 피지 않은 현재와 꽃이 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미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② (나)에서 화자는 ‘지는 꽃을 어이하리’와 ‘가는 입을 잡으랴’와 같은 체념적 어조를 바탕으로 시간의 불가역성에 대해 순응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 ‘맺힌’, ‘뻗어 가는’ 등의 현재형 시제는 ‘이 입의 사랑’에 대한 과장된 묘사와 어울려 화자가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군.
- ④ (가)에서 ‘돌아오니’의 현재형 시제는 ‘예 피던’과 대비되어 현재 상황을 표현하는 반면, (나)에서 ‘가는 춘풍’과 ‘지는 꽃’의 현재형 시제는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을 표현하고 있군.
- ⑤ (나)에서는 현재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되고, (다)에서는 현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연속된다고 볼 수 있겠군.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15p / 해설 3p]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 달소수간이나 줄곧 울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

[A] 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면산바라기로 오두마니 앉아 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

(중략)

어머니나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이를 꾸려 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택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중계 지내 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 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B] 뒤로도 곁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더 쏘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쏘아져서 바닷새에 숨은 빨갱이 마자 다 썰어 가라! 나무 틈새기에 었던 빨갱이 솟대이같이 짹짹 꼬실러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옹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져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저 늙다리 예편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
그러자 안방 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의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누 집인 중 알고 저 지랄이라, 지랄이?”
옆에서 흔들여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 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시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웬수로 갚는다드니 그 말이 거그를 두고 하는 말이고만. 올디 갈디 없는 신세 하도 불쌍허서 들어얏혀 농게로 인자는 아도 으런도 몰라보고 갖인 야냥개를 다 부리네그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송악시런 맘을 먹으며는 댁대로 거그한티 날베락이 내리는 뱀여.”

당장 메어꽃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슬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혼계조가 되었다.

“아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 빛감도 말어. 인명은 재천이랬다고, 다아 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여. 그리고 자석이 부모보담 먼저 가는 것은 부모 죄여.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았기 땀시 자석놈을 앞시워 놓고는 뒤에 남겨서 그 고통을 다아 감당허게 맹근 게여. 애시당초 자기 팔자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허고 마잘 것이 없어. 낫살이 저만치 예순 줄에 얹어 있음시나 조께 부끄러운 중도 알아야지.”

[C] “그러.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덜놈 먼침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째어지고 나와서 아덜 농사를 그 따우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양갈지게 쏘아붙였다.
“저놈으 예편네 말허는 것 좀 보소이.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했능개비. 내 아덜이 왜 어디가 어찌 간디그려?”

“생각허 보면 알 것이구먼.”
“저 죽은 댁이 지사 지내 줄 놈 한나 없응게 남덜도 모다 그런 중 아는가 분디…….”

“고만덜 허 뒤요!”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다, 끈덕도 없어. 무신 일이 생겨야만 쇠이 시연헐 티지만 순철이 가는 쏘내기 새도 요리조리 뚫고 댁길 아여.”

“어따 구만덜 허라니께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 윤희길, 「장마」 -

[25001-0007]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로,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십시오.

- (1) 할머니는 ‘나’가 형사에게 삼촌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하였다. ()
- (2)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자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었다. ()
- (3) 외할머니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이후 삼촌이 속한 빨치산을 저주하였다. ()

[25001-0008]

2. <보기>를 참고하여, [A]~[C]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차적인 인물이 주동 인물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본 주동 인물의 이야기가 소설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야기의 내용은 ‘나’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가 된다. 그래서 일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 시점의 주관성과 관찰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함께 유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부차적 인물로서 주동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동 인물을 객관화하기 때문에, 주동 인물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해 객관성이 높다.

- ① [A]의 ‘불쌍한 사람’, ‘초라한 할멈 하나’와 같은 표현을 통해 주동 인물인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주관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② [A]는 관찰자인 ‘나’의 눈에 비친 ‘외할머니’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주동 인물의 처지에 대한 정보를 일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에 비해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B]의 ‘할머니의 말을 읊기자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부차적인 인물인 ‘나’에 대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태도를 객관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B]는 ‘나’가 주동 인물인 할머니, 외할머니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찰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⑤ [C]는 주동 인물인 할머니, 외할머니와 거리가 가까워진 ‘나’가 주동 인물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자신의 시점에 따라 전달함으로써 구체적 갈등 양상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5001-0009]

3. 윗글에서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 사회·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서술하시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19p / 해설 4p]

우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여 의논하기를,

“창고지기 장 씨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인데,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아깝고 참혹한 일이다.” 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우치가 내려가 물으니 한 사람이 대답했다.

“호조의 창고지기 장계창이란 사람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데, 문서를 잘못 작성한 탓에 자기가 쓰지 않은 은자** 이천 냥이 부족하게 되어 그 죄로 형벌을 받는다기에 탄식하고 있소.”

㉠ 우치가 불쌍히 여겨 다시 구름을 타고 형벌 받는 곳에 가서 기다리니, 과연 한 소년이 수레에 매달려 오고 그 뒤를 쫓은 계집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우치가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 사람이 장계창이었다. 동정을 살피니, 옥줄이 죄인을 내려놓고 형벌을 집행할 때가 되었음을 외치고 있었다.

㉡ 우치가 바람이 되어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하늘로 올라갔다. 감형관이 크게 놀라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도 놀라시고 조정 신하들도 의아하게 여겼다. 우치가 집에 돌아와 장계창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먹이니, 얼마 있다가 깨어나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했다. 우치는 앞뒤 사정을 말해 주고, 어머니에게도 이 사연을 고했다.**

우치가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사연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한재경이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상을 당했으나 장사 지낼 돈이 없고 **칠십 노모를 봉양할 길이 없어** 서러워 울고 있소.”

㉢ 우치가 이를 불쌍히 여겨 소매에서 족자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직아’ 하고 불러 대답하는 자가 있으면 은자 백 냥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 백 냥을 내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해 노모를 봉양하라. 하지만 만일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그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우치의 사는 곳과 이름을 묻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족자를 펴 보니 아무것도 없고 큰 집만 하나 그려져 있는데, 집 앞에는 동자를 그리고 문에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 그 사람이 시험 삼아 ‘고직아’ 하고 부르니, 과연 그림 속에서 동자가 대답하고 나왔다. 그 사람이 놀라며 은자 백 냥을 달라고 하니 동자가 은자 백 냥을 꺼내 와 앞에 놓았다. 재경은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고직아’ 하고 불러 은자 한 냥을 달라고 하여 하루씩 썼다. 하루는 돈 쓸 곳이 있어** 생각하기를, ‘은자 백 냥을 꾸어 쓴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하고 고직이를 불러 말했다.

“쓸 곳이 있어 은자 백 냥을 먼저 꾸어 쓰려고 하노라.”

고직이 허락하지 않자 재경이 여러 차례 달래며 말하니, 고직이 대답하지 않고 들어가 문을 열었다. 재경이 따라 들어가 **은자 백 냥을 가지고 나오려** 하는데 창고 문이 닫혔다. 재경이 놀라서 고직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크게 화가 나 발로 문을 박차고 나왔다. 때마침 호조 판서가 조정에 나가 집무를 시작할 채비를 갖추는데 고직이 아뢰었다.

“창고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 매우 수상하옵니다.”

호조 판서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하급 관리들을 모아 문을 여니, 한 놈이 은자를 가지고 서 있었다. 관리들이 크게

놀라 물었다.

“네 어떤 **도적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재경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너희들은 누군데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 이리느냐?**”

이에 관리들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조 판서에게 아뢰니, 호조 판서가 재경을 계단 아래에 꿰리고 꾸짖었다. 그제야 재경이 주위를 살펴보니 제집이 아니라 관가였다. 재경이 크게 놀라 말했다.

“내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재경이 어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네가 창고 안에 들어와 은을 훔치려 한 죄는 죽어 마땅하니, 네가 속한 도적의 무리를 모두 아뢰어라.”

재경이 자초지종을 다 고하니 호조 판서가 그 족자의 출처를 물었다. 이에 전우치와 만난 사연을 아뢰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전우치를 언제 보았느냐?”

“본 지 사오 개월 되었으며, 집은 남서부라 하더이다.”

㉣ 호조 판서가 재경을 가두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 보니, 은자는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다. 또 다른 창고를 보니 돈은 없고 누런 뱀만 가득 따리를 틀고 있었다. 호조 판서가 괴이하게 여겨 이 사연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셨다.

이때 각 창고의 관리들이 보고하기를,

“창고의 쌀이 벌레로 변했나이다.”

또 각 군영에서 보고하기를,

“창고 안에 있던 무기가 다 없어지고 나뭇가지만 쌓였나이다.”

또 궁궐 내시가 보고하기를,

“말린 해물이 생선으로 변했나이다.”

또 궁녀가 보고하기를,

“궁녀들의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 날아가고, 내전에 큰 호랑이가 들어와 궁인을 해쳤나이다.” 하거늘, ㉤ 임금께서 크게 놀라 활 잘 쏘는 궁노수를 뽑아 내전에 들여보내니 궁녀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었다. 차마 활을 쏘지 못하고 임금께 보고 하니, 임금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궁녀를 앞질러 쏘라 하셨다. 이에 ㉥ 궁노수가 들어가 동시에 활을 쏘려 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에 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전우치의 요술이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하리라.” 하니 호조 판서가 아뢰었다.

“가뉘 둔 도적 또한 전우치와 한패이니 빨리 죽이옵소서.”

임금께서 허락해 재경을 처형하려 할 때 문득 거센 바람이 크게 일어나며 **재경이 간데없이 사라지니**, 이는 우치가 구한 것이었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25001-0010]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은 장계창의 억울함을 풀어 줄 방법을 모색하다가 우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 ② 고직은 한재경이 돈을 꾸 달라고 집요하게 부탁하자 우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은자를 빌려준다.
- ③ 한재경은 죽자를 받으면서 듣게 된 우치의 이름과 거처에 대한 정보를 호조 판서에게 알려 준다.
- ④ 호조 판서는 한재경에게 영문을 묻지도 않고 그를 가두고 전우치와 같은 도적의 한패로 간주한다.
- ⑤ 임금은 괴이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서도 신하들의 요구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한재경의 처형을 허락한다.

[25001-0011]

2. 윗글의 ㉠~㉣에 나타난 주인공의 도술 사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과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 기>

전우치가 도술을 쓰는 목적과 의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필 수 있겠으나, 특히 반복·강조되는 도술 사용의 대상 및 결과를 통해 주된 목적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도술 사용이 나타나는 부분	도술 사용의 대상	도술 사용의 결과	도술 사용의 목적과 의도
㉠, ㉡, ㉢	백성	어려움에 빠진 백성을 찾아감. 백성이 위기에서 벗어남.	불쌍한 백성을 (㉠) 위함.
㉣, ㉤, ㉥	궁궐 창고의 물건, 궁궐 사람들	임금과 관리들이 혼란에 빠지고 곤욕을 겪음.	무능한 지배층을 (㉡) 위함.

㉠ : _____

㉡ : _____

[25001-0012]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우치전」에서 위기에 처하여 전우치의 도움을 받는 약자들은 윤리적으로 선한 면모와 함께 ‘결함’을 지닌 인물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주인공 전우치 역시 약자를 돕는 선한 행위를 하지만, 이와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는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인물로 나타난다. 이처럼 결함을 지닌 것으로 설정된 인물들은 독자들에게 작품 속의 인물들이 평범한 민중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독자의 공감과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구원받는 약자들이 겪는 위기는 대부분 국가나 관리의 무능, 횡포에서 비롯된다는 점인데, 이를 약자들이 지니는 결함보다 비중을 크게 다루어서 독자들이 당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다.

- ① 장계창의 경우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 윤리적으로 선한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지만, ‘문서를 잘못 작성’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점에서 결함도 지닌 평범한 민중이라 할 수 있군.
- ② 장계창이 ‘쓰지 않은 은자’ 부족으로 형벌을 받게 되었고, 한재경과 노모의 생계유지에 쓰인 하루 ‘은자 한 냥’이 결국 빈민 구제에 쓸 수도 있는 나랏돈이었다는 사실은 약자들이 겪는 위기가 궁극적으로 국가나 관리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우치는 ‘장계창 부부’를 집에 데려가 ‘약을 먹이’고, ‘재경이 간 데없이 사라지’게 하여 위기에 빠진 약자를 구하는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궁궐 안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희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모습도 함께 지냄으로써 인격적으로 불완전함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한재경의 경우 ‘칠십 노모를 봉양할 길이 없어’ 울고, 아버지 상을 위해 ‘은자로 장사를 지내’며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는 모습에서 선한 면모를, 우치가 경계하였음에도 과욕을 부려 규칙을 어기고 ‘은자 백 냥을 가지고 나오려’ 하는 모습에서는 도덕적 결함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한재경이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 이러느냐’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약자를 ‘도적’으로 모는 관리들의 부당한 행위에 정의롭게 맞서며 윤리적 행위를 하는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24p / 해설 4p]

[앞부분 줄거리] 장마와 폭우로 마을 가옥이 침수된 어느 날, 친일과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해 온 마을의 지주인 거복에게 삼대째 내려오는 오백 년 된 행자나무를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처남 영팔은 이재민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생계를 꾸릴 밀천 마련을 위해 행자나무를 팔 것을 부탁하고, 청년 지도자 하동정은 수재민 구제금으로 행자나무를 기부해 달라고 요청한다.

거복: 그걸 날더러 삼천 원에 팔라구? 그야, 나두 돈은 탐나. 돈을 저 철괘에다 모는 것, 그리고 그 돈을 꺼내서 땅을 사는 것, 사실 그 밖에 나한테 낙이라는 건 없다. 허지만 그렇다구 돈을 위해 선조의 유지를 꺾을 순 없어.

영팔: 허지만 매부, 저 한 그루 나무로 전재민* 일가족이 갱생할 수 있다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두 지하에서 만족하시지 않겠어요?

거복: 듣그럽다*. 그게 고인에 대한 손주로서의 예법이나?

처: 여보.

거복: (벨는 듯이) 가 다구 오늘은.

처: 아—니 여보, 몇 달 만에 온 사람을……. ㉠(동생에게) 언짢게 생각 말어라.

영팔: (일어서며) 누님, 그만 가 보겠우.

처: 너두 어린애처럼, 가라구 했다구 금세 일어서니? 느이 매분 원체가 그런 분 아니냐?

영팔: 또 가 봐야 할 곳두 있으니까……. (마루에서 내려와) 매부, 난들 어찌 할아버님의 유언 말씀을 모르겠소? 허지만 소문에 들으니까 매부가 저 나물 이번엔 비신답디다. 기왕 비실 바에야 날 주시라구 한 거예요. 고향 떠난 지 십 년, 한뎡 걸치구 자전거 끌구 땀기여, 장만한 세간 나부래기들 전쟁통에 다 뺏기구, 그래두 **해방되구 독립됐다구** 고향이라구 찾아오니, 몸 부칠 집도 없구, 배급 쌀두 없구, 일자리두 없군요. 어린 새끼 늙은 강냉이 잘못 먹구 맹장염이 걸려 널부러졌지만 약 한 봉 사 맥일 돈이 없어요. 에펜넨 못 먹어 부황병이 걸렸구……. 몇 번이구 망설이다가 매불 찾아와 사정 애길 한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 나옴으로) 누님, 그만 가 보겠우. **안녕히 계슈.**

(중략)

동정: 정 그렇시다면, 저 **행자나무**라두…….

거복: ㉢(필쩍 뛰며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 해, 행자나무를요?

동정: (태연히) 네, 저 나무는 작년 이맘때 수국 아버지께서 자진해서 해군에 공출하기루 하셨든 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서울 해군 무관부에서 소위가 내려왔구, 역장 군수, 경찰서장을 위시해서 군관민이 전부 나와 이 나무의 장행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막 빌려구 하든 참에 역사적인 **일황의 정전 방송**이 있어, 군함 재료의 공출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니까 그때 공출하신 셈치구, **기부해 주십쇼.** 새로운 시대에의 온갖 장해물인 일제의 잔재를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두 될 겐,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거복: 하 선생, 저 나무는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라를 위해서 유익히 쓰두룩 하라고, 아버님께 유언하신 나무요.

동정: 그 유언을 아버님께서 수국 아버지한테 계승시키고 돌

아가신 건 아마 이 동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겐니다. 허지만 수국 아버지께서, 작년 공출을 자진 신청하실 때 두 군수와 서장한테 나라를 위해 써 달라구 하시지 안 했습니까?

거복: 그, 그뎨 어떤 게 내 나란지 사실 분간을 못 했었요. 허지만 이렇게 해방이 돼서, 내선일체란 새빨간 거짓말이구, 우리는 결코 일본 놈의 황국신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요. 그렇니 이번에는야말로 우리 대한 나라를 위해서 쓸 작정이요.

동정: 영팔 씨가 저 나무로 가구를 맹글어 갱생할 수 있고, 천여 명 수해 동포가 그 돈으로 구원될 수 있다면, 그야말루 할 아버님 유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거복: 하 선생은 동포 동포 하시지만, 동포엔 전재민과 수재민만 있답디까? 공장 주인두 있고, 상인두 있고, 짝 교장 같은 목사두 있고, 순사 형사두 있고, 또 나 같은 지주도 있요. 나는 이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조선 삼천만 동포들을 다 같이 위해서 쓰구 싶단 말이요. ㉣(점점 흥분하여진다.) 목전에서 잠깐 고생하는 전재민 수재민들만이 아니라, 삼천리 우리 금수강산에 사는 삼천만 대한 민족 전부를 위해서 쓰구 싶단 말이요. (하고 마루를 친다.)

동정: (얼떨떨하야) 삼천만 전부를요?

거복: 그렇소. (자기 웅변에 스스로 감격하여) **삼천만 전부를 위하는 길이란** 뭘겠소? 독립이요. 자주독립이요. 이 **독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죽 우리들의 **오남익 각하** 한 분뿐이요. ㉤그래 나는, 오늘 오 각하의 내임을 기회로, 할아버님의 유언을 따라, 이 행자나무를 각하께 바치기루 했소. (하고 진땀을 씻는다.)

동정: 저걸 갖다 뭘 하시게?

거복: (더 한층 득의양양해지며) 이번 각하께서 서울 시외에다 별장을 지신다 하오. 난 저 나무를 삼분해서, 밑뎡은 화로를 맹글구, 가운데는 바둑판을 맹글구, 윗뎡머리하구, 가장군 장기를 맹글어서, 각하의 사랑에다 헌납을 할 작정이요.

동정: 각하께서 그런 기분, 조금두 반가워하시지 않을 겐니다. - 함세덕, 「고목」 -

* 전재민: 전쟁으로 재산을 잃은 사람.
* 듣그럽다: 듣기 싫게 떠들썩하다.

[25001-0013]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자나무’를 통해 출세를 향한 중심인물의 욕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일어서며’, ‘마루에서 내려와’ 등의 행동 지시문을 통해 등장인물의 동작 및 위치 이동을 지시하고 있다.
- ③ ‘안녕히 계슈’, ‘기부해 주십쇼’ 등과 같은 구어체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해방되구 독립됐다구’, ‘일황의 정전 방송’ 등과 같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여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⑤ ‘독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오남익 각하’라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의 사회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25001-0014]

2. 윗글을 연극으로 상연하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가의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동생의 마음을 위로하며 다독이는 어조로 연기해 주세요.
- ② ㉡: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상대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조되는 인물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③ ㉢: 상대방의 말을 듣고 당황하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말을 더듬으며 연기해 주세요.
- ④ ㉣: 자신의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 말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빠르게 하여 점점 격양되는 모습을 연기해 주세요.
- ⑤ ㉤: 상대방이 자신의 속마음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긴장된 상황을, 흐르는 땀을 닦는 행동으로 연기해 주세요.

[25001-0015]

3. 다음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읽고,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갈등 관계에 대해 토의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서술하시오.

—<보 기>—

「고목」은 마을 지주인 박거복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행자나무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해방 직후 미군정 시대에 벌어지는 계급적 갈등, 신념의 갈등, 경제적 갈등 등을 극적으로 형상화한다. 특히 ‘행자나무의 용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이 지주 거복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전개된다. 이와 같이 ‘고목의 용도 정하기’라는 갈등의 원인은 ‘봉건 및 일제 잔재의 청산과 이상적 국가 건설’이라는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데 기여한다.

- 학생 1:** 거복은 자신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오 각하에게 뇌물을 만들어 바치는 용도로 행자나무를 사용하려고 해.
- 학생 2:** 맞아. ‘삼천만 전부를 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오 각하가 새로 짓는 별장의 화로와 바둑판, 장기로 행자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인 것 같아.
- 학생 1:** 맞아. 거복과 달리 청년 지도자 하동정은 봉건 잔재와 일제 잔재를 뿌리 뽑아야 진정한 독립일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나무를 베어 (㉠) 용도로 행자나무를 사용하려고 해.
- 학생 2:** 거복과 하동정의 갈등은 혼란한 해방 공간에서 나타나는 인물 간 신념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데 거복과 영팔의 갈등 장면도 눈에 띄었어.
- 학생 1:** 맞아. 영팔은 식민지 수탈에 희생당한 전형적인 민중의 모습으로, 가족들을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용도로 행자나무를 활용하고 싶어 해.
- 학생 2:** 이에 반해 거복은 사회적 입신과 경제력 확장을 위해 권력자에게 아첨하며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 왔어. 그런 점에서 거복과 영팔의 대립은 (㉡) 차이로 인한 갈등 관계라고 볼 수 있어.

㉠: _____

㉡: _____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29p / 해설 5p]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공공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러기에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여겨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다가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백성에게 외면을 당한 채 쫓겨나고 백승*의 대부(大夫)도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게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 이곡, 「차마설」 -

* 만방(萬邦): 국력이 강하고 영토가 넓은 나라.
* 백승(百乘): 백 대의 수레. 부와 권력을 상징함.

[25001-0016]

1. **노둔하고 야윈 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가 연민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의 표상이다.
- ② 주인의 몰락한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가난한 처지에 있는 글쓴이가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불안감을 유발하여 스스로 조심하도록 만드는 조건이다.
- ⑤ 글쓴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회피해야 하는 장애물이다.

[25001-0017]

2. <보기>에서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차마설」에서는 준마를 빌려 탔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당한다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준마를 타면서 의기양양하게 구는 일은 높은 권력을 누리는 일과 상통합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은 ㉠에 제시된 ‘백성에게 외면을 당’하는 임금, ‘임금의 신임을 잃어버린 채 쫓겨나’는 대부가 처한 상황과 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을 통해 글쓴이가 전하고자 했던 뜻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이라는 조건절을 염두에 두면서 말해 봅시다.

학생 : 저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모든 권력은 남에게 빌려 쓰는 것이므로 스스로 때를 선택해서 돌려주어야 한다.
- ② 권력을 남에게 빌려서 쓰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므로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
- ③ 권력을 강제로 돌려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④ 남에게 빌린 권력은 돌려주는 때가 반드시 오게 마련이므로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 ⑤ 남에게 권력을 빌려 쓰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자신도 남에게 권력을 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25001-0018]

3. <보기>는 ㉠을 인용한 목적을 추론하기 위한 자료와 추론 결과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보 기>—

<자료>

- ㉠. ㉠의 맥락: 민본주의적 정치사상을 주창했던 맹자가 “요순은 본성대로 한 것이요, 탕왕과 무왕은 몸에 익힌 것이요, 춘추 오패는 차용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을 덧붙임. 이는 성군의 전형인 요순 임금, 탕왕, 무왕과는 달리 중국 춘추 시대의 다섯 패자(霸者)가 자신의 권세를 빌렸다는 점을 몰랐기에 성군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임. 패자는 황제로부터 일정한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제후의 우두머리를 뜻함.
- ㉡. 글쓴이가 처한 시대 상황: 이곡은 고려가 원나라에 종속되어 있던 시기의 인물. 충렬왕을 비롯하여 이곡 생존 당시의 여섯 임금들은 모두 무능하거나 방탕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샀음.

<추론 결과>

글쓴이가 ㉠을 인용한 목적은 (㉠)에 대한 맹자의 권위 있는 평가에 기대어 (㉡)을/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음.

㉠: _____

㉡: _____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32p / 해설 6p]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내게는 펍 고맙게 굴고 또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리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 큰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 동리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에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에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사랑에 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 줍니다. 또 가끔 사탕도 주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 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에야 점심을 잡수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 옥희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나?”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한 알 집어 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디다. 나는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두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짹짹 치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말어.” 그러시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맘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 그래 안마당으로 뛰어 들어서면서

“㉡ 어머니, 어머니, 사랑 아저씨두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말어.”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달걀 장수 노친네가 오면 한꺼번에 열 알도 사고 스무 알도 사고 그래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으레 나도 한 알씩 주고 그래요. 그뿐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담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아주 좋았어요. 마는 외삼촌은 가끔 툄툄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상 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니까 그것이 하기 싫어서 그랬겠지요. 한번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 제길, 남 어디 좀 볼일이 있는 날은 반드시 끼니때에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툄툄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짜갔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 누님이 좀 상 들구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하십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중략)

“옥희야.” 하고 또 물으십니다.

“응?” “옥희는 언제나 언제나 내 곁을 안 떠나지. 옥희는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엄마하구 같이 살지. 옥희 엄마는 늙어서 꼬부랑 할미가 되어두 그래두 옥희는 엄마하구 같이 살지. 옥희가 유치원 졸업하구 또 소학교 졸업하구, 또 중학교 졸업하구, 또 대학교 졸업하구, 옥희가 조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두 그래두 옥희는 엄마하구 같이 살지. 응! 옥희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나?”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짹 벌리어 보였습니다.

“응 얼마나? 응 그만큼! 언제나 언제나 옥희는 엄마를 사랑하지. 그리구 공부두 잘하구 그리구 훌륭한 사람이 되구…….”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또 울까 봐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짹 짹 벌리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응, 옥희 엄마는 옥희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옥희 하나면 그만이야. 그렇지, 옥희야.”

“응!” 어머니는 나를 당기어서 꼭 껴안고 내가 숨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주었습니다. 땡기도 새 땡기를 드려 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것을 꺼내 입혀 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 하고 물으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풍금 옆에서 새로 다린 하얀 손수건을 내리어 내 손에 쥐여 주면서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드리고 와, 응.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드리고 이내 와, 응.”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을 펴 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방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받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다 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새파래졌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받더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돌아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나는 풍금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았지요.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금을 타십니다. 무슨 곡조인지는 몰라도 어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야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구슬프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25001-0019]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로,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십시오.

- (1) 아저씨는 옥희 아버지의 친구이자 학교 교사이다. ……()
- (2) 옥희는 아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자신의 달걀을 아저씨와 나눠 먹는다. ……()
- (3) 어머니는 옥희를 통해 종이를 넣은 손수건을 아저씨에게 전하고 있다. ……()

※ <보기>는 윗글에 대한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2번과 3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학생 : 선생님, ‘옥희 하나면 그뿐’이라는 옥희 어머니의 말이 너무 슬퍼요. 이 말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서로 다른 해석이 있어 놀랐어요.

선생님 : 맞아요. 이 작품이 발표된 이래, 독자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크게 두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작품의 주제를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안타깝지만 아름다운 이별’로 해석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서 독자는 어머니가 사랑손님에게 잠시 호감을 느끼지만, 옥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정리하는 작품으로 이 소설을 이해합니다. 둘째는 이 작품의 주제를 ‘전근대적 인습으로 인해 재혼의 욕망을 포기하는 여성의 슬픔과 고통’으로 해석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서 독자는 어머니가 사랑손님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사별한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던 전근대적 인습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포기하게 되는 작품으로 이 소설을 이해합니다.

학생 : 그럼 전자의 관점과 후자의 관점에서 인물의 말이나 행동, 심리도 다르게 이해되나요?

선생님 :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옥희 하나면 그만이야.”라는 어머니의 말을 살펴볼까요. 전자의 관점에서 이 말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은 (a) (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이 말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b) (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학생 :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작가의 생각도 궁금해요. 작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생님 : 우리가 작가에게 그의 생각을 직접 물어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가 쓴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근대적 지식인이었던 주요섭은 「결혼에 요하는 삼대 조건」이라는 글에서 “사랑이 있고 이상이 같고 두 편이 다 건강한 사람이면 그들은 꼭 결혼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소를 다 가지고도 무슨 풍속이 어떠니 사회 환경이 어떠니 부모가 어떠니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 대한 죄인이요 따라서 전 인류에 대한 큰 죄인이올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나 만남이 봉건적 풍속이나 전근대적 인습에 예속되는 세태를 비판하는 말이지요. 이 작품에서도 ㉠ 작가의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인물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5001-0021]

3. ㉠~㉣ 중 <보기>의 ㉡에 해당하는 구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5001-0020]

2.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 _____

㉡ : _____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특 36p / 해설 7p]

무대가 밝아지면 동헌의 마루와 마당이 보인다. 아침. 주민들이 하나들 모이기 시작한다. 개막 때 보았던 연기자 한두 명도 요즈음 옷차림으로 나타나 주민들 틈에 낀다. 놀부가 풍금의 등에 업혀 나온다. 사람들이 다 모여 웅성거릴 때 암행어사 일행이 들어온다. 암행어사는 마루에 오라가 의자에 앉는다.

고지기: 주민 여러분! 암행어사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라 머리를 숙인다.

어사: 현감과 그 졸도를 끌어내라. 이제부터 현감의 죄목을 공개한다.

주민들: ……여자 목소리야, 여자야.

포졸이 현감과 이방을 끌고 나와 어사 앞에 앉힌다.

어사: 네가 분명 현감이겠냐? 너는 이방이냐?

현감: ……아……니? 여자야? 암행어사가 여자? 원 살다 보니 별볼 다 보겠네. 말세다. 말세!

어사: 너 같은 자가 도처에서 백성을 괴롭히니 말세가 온다. 내 이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곳은 처음 봤다. 네 죄목은 수십 가지에 달한다. 너도 잘 알 것이다.

현감: 좀 생각해 봅시다.

잠시 사이.

풍금: (놀부 처에게) 어머니, 나 저 어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놀부 처: 암행어사는 숨어 다니는 분이다. 네가 어디서 봐?

풍금: 맞다, 맞아. 에미 제비! 그 깍시! 작은아버지 집에 동지를 틀고 살던 제비. 그 제비예요. 제비가 어사가 됐어!

어사: (풍금 쪽을 보며) 그쪽은 왜 소란한가? 자 현감. 할 말이 있는가?

현감: 왜 하필 나만 가지고 그래요? 현감이라는 관직은 다 그런 겁니다. 통치를 하려면 다소의 위법은 부득이합니다. 어사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일이 곧이곧대로 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사, 우린 한배에 타고 있는 몸 아닙니까? 서로 도와야지 처벌하면 뭣해요? 우리들 세력만 약해지지. 내가 쫓겨나면 더 훌륭한 현감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아, 자진해서 주는 돈, 왜 마다합니까? 나 억지로 돈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어사: 그래? 그래서 내가 놀부에게 출두를 요구했다. 놀부, 돈을 자진해서 현감에게 주었나?

놀부: 몸이 불편합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어사: 잘 안 들린다.

풍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강탈당했습니다.

어사: 현감, 부녀자 강탈에 대해서 물어볼까?

현감: 과장입니다. 그런 걸 사람들 앞에서 왜 묻습니까. 창피하게.

어사: 창피한 줄은 아는군.

현감: 무슨 팔자로 여자한테 걸렸을까!

어사: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남성들, 썩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들한테만 국정을 맡길 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주상 전하께서 예부터 안방과 부엌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었던 우리 여성들을 밖으로 나오라 하셨겠나. 자, 이 현감과 이방을 투옥하라.

이방: 잠깐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사: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이방: 바로 그겁니다.

어사: 시끄럽다. 비겁한 자군. 자, 어서 두 죄인을 투옥해라.

포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간다. 사람들이 야유를 한다. 새끼 제비가 날아온다.

어사: (손을 흔들며) 그래, 곧 갈 거다.

놀부가 앞으로 나온다.

놀부: 어사 나리!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현감한테 강탈당한 돈,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요. 제발 제 돈 찾아 주세요. (주민들이 야유를 한다.) 저는 깨끗하게 돈을 벌었는데 (주민들 쪽을 보며) 저것들은 왜 나를 비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구두쇠”, “노랑이”, “심술쟁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어사: (주민들에게) 돈 있는 사람을 괜히 비웃는 버릇은 좋지 않다. 너희들더러 누가 돈 벌지 말라고 했는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도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라. 자, 이 모임은 끝났다. (어사가 마당으로 내려온다.) ……한 가족 간의 일에 타인이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듣건대 그대는 동생, 그 가난한 동생을 추방했다는데 좀 심한 일 아닌가?

놀부: 추방이라뇨. 사람 만들려고 매질을 한 셈입니다. 마음은 아팠습니다. 대신 흥부는 지금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어사: 네가 흥부를 보았는가?

놀부: 그게……, 음…… 형님, 고맙습니다. 하더군요.

어사: 다행한 일이다. 어제 좋지 못한 꿈을 꾸었지? 얼굴에 나타나 있어.

놀부: ……네. 창피한 꿈이죠. 그래서 피곤합니다. 늙어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노욕에 미쳐 가는 것 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더욱 벌고 싶으니…….

어사: 제비 다리를 꺾어서라도.

놀부: 네?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사: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고. (풍금에게) 네가 아들이라 했지? 그 낭자, 향실이라 했나? 불쌍한 애다. 그러나 똑똑하다. 잘 보살피 주도록.

놀부: …… 내 그럴 줄 알았지. 밤에 담을 넘어 다니더니.

어사: 아버지를 잘 모시고 부친이 벌어 쌓아 둔 재산 좋은 데 쓰도록. 세상에 태양과 달이 있고, 양지와 음지가 있듯이 인간 사는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행복한 사람이 서로 부며 대며 살고 있다. 우리는 어차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서로 상부상조 하며.

놀부 처: 훌륭한 말씀입니다. 다 늙기 전에 돈을 좀 쓰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사: 혼자만 쓰라는 말이 아니다.

어사가 걷는다.

풍금: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판입니까? 제비가 인간을 재판하고 설교를 해요. 참, 창피한 인간이 됐네요.

음악이 깔리며 어사가 노래를 하고 주민들이 춤을 춘다.

어사: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
천년만년 별들은 변함이 없네
아름다운 별들은 우리의 소원
별들은 모여 산다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영원하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더불어 살자
너도나도 모여서 더불어 살자
저 먼 산의 높고 푸른 나무들
서로 기대고 의지해 더불어 산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굳세어라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네
좋아도 싫어도 같이 산다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한다
정이랑 사람이랑 서로 나누고
감싸고 덮어 주며 더불어 살자”

바람 소리. 명멸하는 조명. 무대는 개막 때의 연습장으로 되 돌아간다.

연출가: ……야, 오랜만이다. 다 모였어?

지휘자: 300년 전의 세상…… 단순한 줄 알았더니 복잡하군.
놀부가 큰소리치더니…… 욕심이 많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악하진 않았어.

연출가: 놀부의 아들, 풍금이와 그 처녀, 향실은 어떻게 됐을까?

지휘자: 영원히, 지금도 만나고 있겠지. 흥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연출가: 그 베짖이. 베짖이는 영원히 베짖이야. 개미는 될 수 없거든. 흥부는 오늘날 살아 있다면…… 예술가야. 베짖이한테는 노래나 부르도록 내버려둬야 해. 베짖이로 태어났는데, 흙을 파고 농사하라 해도 그건 무리야. 베짖이가 노래나 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도와야 해. 결국 나…… 자네들도 베짖이니까. 놀부가 그걸 몰랐어.

지휘자: 흠…… 놀부가 또 나타날 것 같아. 화를 내며.

연출가: 그럴지도 모르지. 자, 우리 베짖이들, 노래나 부르고 오늘 연습은 끝냅시다.

음악이 깔리며 여태껏 소개된 노래의 부분 부분이 합창되며 막이 내린다.

- 이근삼, 「놀부전」 -

[25001-0022]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로,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 (1) 뮤지컬을 연습하는 상황 속에 실제 뮤지컬 공연이 삽입되어 있다. ……………()
- (2) 인격화한 동물 간의 갈등을 통해 부정적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 (3) 뮤지컬의 연출가와 지휘자는 뮤지컬 공연 방식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다. ……………()

※ <보기>를 바탕으로 2번과 3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이근삼의 「놀부전」은 고전 소설 「흥부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대본이다. 원작에서는 착하지만 가난한 흥부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고쳐 주어 큰 부자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악독한 부자인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큰 곤욕을 치른다. 그 후 놀부는 그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형제가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흥부전」을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의 연습 장면을 보여 주고 있는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원작의 줄거리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는 유지되되 원작에 나오지 않는 인물과 사건을 삽입하여 원작과 또 다른 주제 의식까지 전달하려 하였다. 즉 위정자가 사리사욕을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세태,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 등을 비판하는 한편, 바람직한 인간사의 모습을 전달하려 하였다. 또 부의 축적, 노동과 예술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제시하려 하였다.

[25001-0023]

2. ㉠의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고려한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놀부는 욕심이 많은 인물이지만 시련을 겪은 후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한다.
- ② 흥부의 집에 있었던 제비를 어사로 등장시켜 동물이 오히려 인간들을 심판하도록 한다.
- ③ 지휘자를 등장시켜 앞서 공연된 사건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도록 한다.
- ④ 어사가 노래하고 주민들이 춤추는 과정을 통해 모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보여 주도록 한다.
- ⑤ 놀부의 아들 풍금을 등장시켜 어사의 정체를 밝히고 어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도록 한다.

[25001-0024]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감이 통치를 위해서는 다소의 위법한 일도 부득이하게 저지러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을 집행해야 할 관리가 법을 무시하고 있는 당시의 세태를 나타내려 한 것이로군.
- ② 어사가 여자라며 무시하는 현감에게 어사가 잘못된 남성 대신에 여성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것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로군.
- ③ 주민들이 놀부를 구두쇠라고 비난하며 꾸짖자 어사가 놀부가 정직하게 일해 돈을 벌었다면 오히려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부의 정당한 축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현대적 평가를 드러낸 것이로군.
- ④ 어사가 인간은 부자와 가난한 이, 병든 사람과 행복한 사람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야 한다고 한 것은, 원작의 주제인 권선징악과 더불어 인간사의 바람직한 모습까지 제시한 것이로군.
- ⑤ 연출가가 흥부가 오늘날 태어났으면 베짖이가 되었을 것이고 자신도 흥부와 같은 처지라고 한 것은, 게으른 흥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현대적 관점을 나타낸 것이로군.

출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특 41p / 해설 8p]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최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곁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
 냐.」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化)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 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

* 민적: 예전에, '호적'을 달리 이르던 말.

[25001-0025]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O'로,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시오.

- (1) 특정 시구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시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 (2) 경어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이 되는 '당신'에게 경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 (3) 대화의 방식을 사용하여 사회적 소통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25001-0026]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용운의 시는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삶의 궤적과 연관하여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제 강점의 현실과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삶을 연관 지어 보면, 그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임', '당신'은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적 상황은 그 조국을 잃어버린 일제 강점의 현실로 볼 수 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시를 통해 조국과 국권 상실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①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 많'다고 하는 것에서 시인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필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땅이 없으므로', '집도 없고', '민적이 없습니다'에서 국권 상실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서 조국을 잃은 국민으로서 시인의 설움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에서 시인은 국권 상실의 원인을 나라에 윤리와 도덕, 법률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 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에서 시인이 국권 상실에서 느끼는 정신적 방황과 갈등을 짐작할 수 있군.

[25001-0027]

3.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글이다. ㉠, ㉡에 들어갈 시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학생 : 문학 작품에는 창작된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기 마련이야. 그런 관점에서 이 시를 감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시가 창작되던 시기에는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빈약했다는 점이야. 시를 보면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모욕하고 능욕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각기 (㉠)와/과 (㉡)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 : _____

㉡ : _____